



#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법구경〉  
습한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애욕의 습지에는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욕은 꽃밭에 숨어 있는 독사와 같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2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79호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 법난 사업 보장 등 '성과' 전통사찰 규제 철폐 '과제'

### 19대 국회, 법난법·정신문화진흥법 등 제·개정

새해를 맞아 국회에서 불교계 현안 이었던 각종 법령 개정되고 불교문화 진흥책이 마련됐다. 제19대 국회는 구랍 31일 본회의에서 총 21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개정되거나 신설된 불교관련 법안이 상당수 포함됐다.

#### 10·27법난 사업 연속성 보장

먼저 이번 국회에서는 불교계 현안 이었던 10·27법난특별법이 개정돼 올해 6월 30일 활동 만료로 명시됐던 유효기간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10·27법난법은 유사 과거사 법률인 제주 4·3사건법, 민주화운동보상법 등과 달리 유효기간을 명시해 '정부가 일시적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불교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연속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정착 사업을 주관할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앞서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한 기념재단이 설립돼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 밖에 법난특별위원회의 사실상 종료된 업무인 피해자 신고 및 심사 부분이 법 조항에서 삭제되고 위원회와 사무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10·27법난 기념사업은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불교계 명예를 회복하는 특수경우로 유사 과거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념재단이 설립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 정신문화 관련 사업 본격 진행

이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법'이 통과됐다. 이는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인문학과 정신문화 역량 확대를 위한 기반법이다. 이에 따라 인문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정부와 인문정신문화 관련된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진행된다. 주무부처는 교육부와 문광부로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올해 3월까지 총 예산 600억원 규모의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ER)을 진행한다. 1월 동안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거쳐 3월 주관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동국대 등 종합대학이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관계자는 "대학 간 경쟁으로 신청여부를 밝힐 수 없지만, 기획재 내 TF팀을 구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새로 입법된 '공공디자인진흥법' 또한 불교계가 눈여겨 볼 만한 법안이다.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의 전반적인 공공문화시설 디자인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불교계는 전통문화에 기반한 사찰의 다양한 시설물 디자인 개편

호기금법 개정안에도 문화재 보수와 복원, 긴급매입 등에만 활용됐던 문화재 호기금에 관한 연구단체의 경비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화유산, 자연환경유산 내 환경훼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규정을 명시한 '문화유산 국민신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학술 지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연구자나 대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학술진흥법' 개정안도 개정됐다.

#### 전통사찰 관련법 정비 과제

하지만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전통사찰과 관련된 법령은 정비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전통사찰보존지 중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전통사찰 주거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이 밖에 공원 내 문화재의 기여도 평가 후 비용을 지원하는 '자연공원법', 문화재 및 전통사찰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과 방안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협의 중에 있다. 종교시설용 농지전용 허용면적을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전통사찰 건폐율 완화 등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등도 조계종측과 정부가 논의 중에 있다. 전통사찰의 증축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입법 예고된 상태다.

법안 외에도 인사혁신처에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공휴일 규정을 변경하는 건이 요청된 상태다. 10월 15일을 '호국의승의날'로 제정하는 건도 청원운동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전통사찰에 대한 관련법령을 정리하고, 규제를 철폐하는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10·27법난법 유효기간 삭제 재단 설립근거 미비 비판성명

#### 문화재 연구기관에도 정부지원 사찰 시설물 디자인 개혁 시작

#### "전통사찰 규제 아직 중구난방"

을 준비 중에 있었다. 정유타 조계종 문화부 팀장은 "2014년부터 문화재청과 사찰안내관 및 문화재해설관 등의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문화재 관련 정부지원 활성화

또 '문화재 관련법 보호법'과 '수리법, 보호기금법'의 3개 법안도 개정됐다. 주요 골자는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문화재 수리에 대한 능력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와 문화재 연구 및 환수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먼저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에는 문화재 수리 능력평가,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의무화, 문화재수리의 부정청탁 방지 등이 담겼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의 관련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문화재보



"청정수행으로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조계종이 1월 5일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한 신년하례법회에서 대중 스님들이 중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 스님들에게 하례를 올리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 진제 스님은 "금생(今生)에 이 견성법(見性法)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느 생애에 이 고귀한 불견성법(佛見性法)을 또 만나겠느냐"며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대구 동화사=노덕현 기자

## 韓불교 일제 탄광 희생자 위로나선다

### 종단협, 1월 30일 日 조세이 탄광 추모비서 위령재 봉행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으로 강제동원됐다 수몰사고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회장 지승 스님)는 1월 30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조세이 탄광(長生) 추모비 및 피아(해저 환기구) 앞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 강제동원 조 선인 수몰희생자 위령재'를 개최한다.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족회' 및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로 역사에 새기는 모임' 등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강제징용 조선인을 포함한 수몰사고 희생자 183명의 영령들을 위로하고,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주최측은 일본 우베시에 탄광수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매몰된 유골 발굴 촉구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일본 히로시마시 열린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서 한 외 교부 관계자가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 위령재를 종단협측에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져 행사가 성사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종단협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중

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등 각 종단 대표자들과 시모노세키 및 히로시마 총영사부 관계자, 일본 시민단체 및 후원회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세이탄광은 시모노세키 남쪽 61킬로미터 지점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강도봉괴로 탄광이 수몰되면서 183여명이 모두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난 곳이다. 이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136명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자들이었으며, 이들을 관리감독하던 일본인 47명도 함께 수장됐다. 희생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몰된 강도에 수장된 채로 유골조차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세이탄광은 '조선탄광'을 일본인이 부르던 호칭으로 채탄광부의 대부분이 조선인 징용자들이었기에 불은 명칭이다. 또한 조세이탄광은 사고위험이 너무 높고 하루 12시간씩 2교대의 높은 노동강도와 해저탄광의 높은 온도, 비좁은 강도 등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유명해 일본인 광부들조차 외면하던 장소다.

아픈 역사 속에 묻혔던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故 야마구치 다케노부 우베영고 교사가 1976년 탄광 사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

면서 조선인 희생자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후 1991년 일본시민단체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로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결성됐다. 이 모임은 지속적인 연구조사로 희생자 유가족들을 찾아내고,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성금모금 및 사고현장에서 유가족들과 1993년부터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조세이탄광이 있던 곳은 현재 한적하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변해 있다. 추모비는 약 70여평 바닷가 주택을 매입해 2013년 2월 건립했으며, 관련 유적으로는 현재 추도비서 200m 떨어진 지점에 해저탄광 배수 및 환기구(피아) 등이 남아있다.

한편 이번 위령재는 바닷가 수몰 현장서의 헌화, 장엄염불, 유족제사, 위령제 순으로 진행된다. 김주익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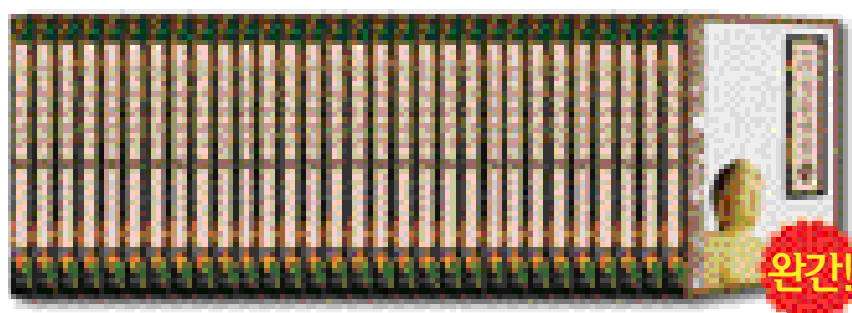
**목각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 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 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해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칩니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기별 자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거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습니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 보시고 불법의 정신자로서 만민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